법원 "영화 '암살' 표절 유사성 없다"

"최씨의 저작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영화 '암살' 표절시비와 관련, 14일 법원이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표절 유사성이 없다"며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작가 최종림씨가 최동훈 감독과 제작사 케이퍼필름, 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최씨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소설과 영화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화가 소설에 의거해 작성됐는지 살필 필요 없이 영화 상영이 최씨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도 "소설과 영화를 비교했을 때 추상적인 인물 유형 또는 사건 자체로서의 공통점은 인정되나 구체화된 표현 형식은 상당히 다른 점이 많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암살' 제작사는 소송전을 이어가게 됐다.

안수현 케이퍼필름 대표는 "지난 8개월간 힘들었다"며 "우리로서는 소설을 보지도 않았고 사건 이후 소설을 읽었지만 왜 표절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유사성이 없으며, 법적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를 한다니 납득하기 힘들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다소 지친 기색을 보였다.

원래 작년 12월께 선고가 예정됐으나 원고가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항일운동과 관련해 역사적 인물 김구라든지, 여성독립가의 존재는 역사적 사실로 특정 창작자의 소유가 아니다. '암살'은 사실을 기반으로 한 최동훈 감독의 순수 창작물로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영화 '암살'과 최씨의 소설 사이에 유사성이 없다. 영화의 주인공인 여성 저격수도 소설에서는 여러 남성 독립운동가들 중 홍일점으로 극중 사랑으로 갈등하며 총을 한 번 쏠 뿐인데 유사성을 주장했다."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가 속속 나오고 있으나 '암살' 이전만 해도 이 시기를 다룬 영화는 시대극의 특성상 제작비가 높은데 고증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선뜻 시도되지 못했다. 하지만 '암살' 흥행성공 이후 1930~40년대를 다룬 영화가 늘고 있다.

안 대표는 "항일운동 소재 영화는 왜곡도 힘들고 대중성도 갖춰야 해서 '암살'은 긴 시간에 걸쳐 자료조사하며 조심스레 준비한 작품이었다"며 "소설이건 영화건 어떤 창작물이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는데 영화라는 매체가 좀 더 대중적이라는 이유로 공격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암살'과 관련한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씨가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 및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제작사와 감독이 최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코리안 메모리즈'는 최씨가 2003년 낸 장편소설로 절판됐다가 2015년 8월4일 재출간됐다. 최씨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는 영화 시나리오 목적으로 집필된 소설로3 최근 5년 동안 영화 제작사, 드라마 작가 등에게 배포됐다"며 "여성 암살조 등 내용이 유사한 영화 '암살'은 이 시나리오를 이용해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해은기자

2015년 7월 개봉해 역대 7위의 흥행 성적을 거둔 영화 '암살'의 한 장면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16년만에 재결합

MBC TV '무한도전' '토토가' 콘서트 통해 '노랭이'와 재회

"안녕하세요. '젝스키스'의 은지원·김재덕·강성훈·이재진·장수원 그리고 고지용입니다."

무려 16년 만이다. 2000년 공식 해체를 발표한 1세대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의 멤버 여섯 명이 16년 만에 이름 앞에 '젝스키스'라는 말을 붙여 자신을 소개했다. 안대와 헤드폰으로 눈과 귀를 막은 채 오랜만에 무대 위에 선 멤버들은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이들의 재결합은 MBC TV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시즌 2로 준비됐다. 앞서 지난 7일 게릴라 콘서트를 열기로 했으나 일정이 유출 돼 전면 취소됐다. 굳건히 기다린 16년보다 지난 일주일이 더 길었다. 1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는 팬들에게나, 멤버들에게나 그만큼 더 소중한 자리였다. 강성훈은 팬들을 '노랭이'라고 불렀다. 경남 김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노랭이', 어느새 아기 엄마가 돼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온 '노랭이'들이 모였다.

안대와 헤드폰을 벗는 순간, "감히 2000~3000명"(강성훈) "무대 앞에 정도"(이재진) "한 1000명"(은지원) 정도의 관객을 예상했던 멤버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장의 관객 5808명이 함성으로 이들을 맞았다.

이날 하루를 위해 젝스키스 멤버들은 지난 6개월을 꼬박 연습했다. 노래도, 춤도 기억에서 잊혀졌고 체력도 옛날 같지 않았다.

'컴백(Com'Back)'으로 화려하게 시작한 이들은 '폼생폼사' '커플' '기억해줄래' 등으로 추억의 무대를 이어갔다. 젝스키스의 16년 만의 재결합을 환영하는 노란 풍선이 파도를 쳤고, 연예계를 떠난 멤버 고지용까지 함께 해 완벽한 '여섯 개의 수정'으로 거듭났다.

/정해은기자

14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무한도전' '토토가2' 젝스키스 콘서트

진안군체육회장기 종목별 대회 열려

2016 진안군체육회장기(회장 이항로) 종목별 대회가 16일 열렸다. 체육회장기 대회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대회로 이번 전반기에는 게이트볼을 비롯한 배구, 테니스 족구, 야구, 바둑, 걷기, 궁도 등 8개 종목 9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8개소의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된 대회에서는 지역 내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화합과 유대의 시간을 가졌다.

이항로 군수는 종목별 경기장을 순회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진안을 스포츠메카로 만들기 위해 체육인이 함께 노력하자."며 "우수한 체육 인프라와 다양한 문화 관광을 연계, 스포츠와 문화를 활성화해 진안의 브랜드가치를 높여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회 부터는 별도의 개회식을 생략해 선수들이 대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 동호인 및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기자

"인권침해국 월드컵 개최권 박탈" FIFA제출

인권을 침해한 국가들의 월드컵 개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스포츠채널인 ESPN은 14일(현지시간) FIFA가 고용한 존 러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교수가 2022년 월드컵 개최지인 카타르의 인권 관련 기록을 조사한 방대한 양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러기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인권 개선을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곳에서 국제축구연맹은 (이들과의)관계를 종식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카타르를 비롯해 FIFA와 관계된 모든 국가나 스폰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FIFA는 설명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앞서 지난달 30일 카타르가 월드컵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회장은 이에 대해 "러기 교수의 작업에 감사한다"면서 "이 작업은 FIFA가 그동안 해온 독자적인 작업과 더불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근기자

차범근 2017 FIFA U-20 월드컵조직위 부위원장 선임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2017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지원한다.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위원장 정몽규)는 14일 차 감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선수 생활 이후 지도자, 해설자, 축구교실 이사장 등으로 활약하던 차 감독이 공식적으로 축구행정 활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감독은 조직위 총회의 서면결의를 거쳐 이날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남산 트윈시티에서 열리는 조직위 현판식에 참석해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조직위의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번 현판식에는 정몽규 위원장을 비롯해 곽영진 상임 부위원장,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 안익수 U-20 대표팀 감독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아울러 1983멕시코 U-20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끈 박종환 감독과 문화체육관광부, 6개 개최도시 관계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김민근기자